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오윤정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Yun-Jung Oh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D광역시 소재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으로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간호핵심역량의 평균 평점은 3.15점(± 0.40) 이었고, 대상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재난 관련 태도 및 학년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19.1%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도, 핵심역량, 재난간호, 간호대학생, 인식,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surveyed 187 nursing students in D city with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8.0 program,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verage mean score was 3.15(± 0.40). Grad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in these subjects.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and self-efficacy. Th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were self-efficacy($\beta = 0.276$), disaster attitudes($\beta = 0.200$) and grade($\beta = 0.172$).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9.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saster related curriculum and subjects that can improve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Key Words : Attitude, Core competence, Disaster Nursi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Yun-Jung Oh(yjoh@kmcu.ac.kr)

Received February 20,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March 24,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고 환경의 다양화를 경험할수록 일상생활 속에 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초과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일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외부 자원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도 없는 대규모의 피해가 초래된다[1,2].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국민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위협을 겪고 있다. 또한 재난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3].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진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도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Nursing, ICN)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함께 간호사에게 재난간호핵심역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또한 간호사들에게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5]. 최근 4주기 간호인증평가 대비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교육역량 중에서도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간호역량을 포함하고 있다[6]. 재난 현장은 임상 현장과는 다른 차원의 환경으로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이므로, 보건의료인들이 재난 현장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7]. 특히 간호대학생 때부터의 적절한 재난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간호핵심역량을 미리 고취하는 것이 간호사의 재난간호핵심역량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기관의 재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안전 및 재난간호’를 학습목표의 대분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재난관련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모든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도서에 재난관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8]. 실제로 학생들의 재난간호 요구도를 살펴보면, 재난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9],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도서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재난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핵심기술기 관련 교육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개발한 ‘재난간호교육과정(80시간)’ 프로그램이 보수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방법으로는 강의와 문제중심학습법(PBL)을 토대로 조별 토론 및 발표, 재난환자 관리를 위한 도상훈련,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한 재난상황 대응 모의종합훈련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재난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10].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재난간호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학 학사과정부터 재난 관련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6,8]. 또한 재난 관련 교육은 학생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8]. 이를 위해서는 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와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들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분석하여, 재난간호핵심역량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중 설문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명으로 동의한 2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외로 사용될 것이며, 자료수집 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응답 시간은 평균 10~15분 내외였으며, 자료 수집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부적절한 응답자 13명을 제외한 총 187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15, 예측변수 9개 일 때 166명이 최소 표본 수로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에서 12월 10일까지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재난인식

재난인식은 Woo, Yoo와 Park[11]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 재난 발생 가능성, 재난교육의 중요성, 재난 준비에 관한 인식,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2.3.2 재난 관련 태도

재난 관련 태도는 Park[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 재난대비의 필요성 등 지각된 민감성, 재난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 예측 등 지각된 심각성, 재난대비의 유익성, 피해예방의 중요성 등 지각된 유익성, 재난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전문가의 부재 등 지각된 장애성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관련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Chen, Gully와 Eden[13]이 개발하고 Kim[14]이

변안하고 수정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3.4 재난간호핵심역량

Noh[15]가 개발하고 Ahn과 Kim[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재난 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160명(85.6%)으로 남학생 27명(14.4%)보다 많았고, 학년은 3학년 104명(55.6%), 4학년 83명(44.4.0%) 이었다. 종교는 없는 군이 124명(66.3%), 대상자가 자가보고한 학업성적은 중간 정도가 144명(77.0%) 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이 109명(58.3%), 보통인 군이 78명(41.7%) 이었고, 재난 간호 참여의사는 있는 군이 149명(79.9%)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차이는 Table 1과 같이 학년($t=-2.603, p=.010$)과 임상실습만족도($t=2.441,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재난 간호핵심역량 정도

대상자의 재난인식은 평균 평점 3.66점(± 0.37), 재난 관련 태도는 3.56점(± 0.37), 자기효능감은 3.67점(± 0.49)이었고, 재난간호핵심역량은 3.15점(± 0.40)으로 나타났고, 다음 Table 2와 같다.

3.3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r=0.163, p=.026$), 재난 관련 태도($r=0.262, p<.001$) 및 자기효능감($r=0.25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3.4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중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보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목적으로 측정된 학년과 임상실습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Table 1.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87)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 (%)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160 (85.6)	47.19±6.25	-0.051(.960)
	Male	27 (14.4)	47.25±6.04	
Grade	3rd	104 (55.6)	46.16±5.91	-2.603(.010)
	4th	83 (44.4)	48.50±6.35	
Religion	Yes	63 (33.7)	47.46±5.69	0.403(.688)
	No	124 (66.3)	47.07±6.47	
Academic performance	High	21 (11.2)	46.85±7.05	0.318(.728)
	Middle	144 (77.0)	47.38±6.29	
	Low	22 (11.8)	46.31±4.8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09 (58.3)	48.12±6.12	2.441(.016)
	Dissatisfaction	78 (41.7)	45.91±6.13	
Willingness to practice disaster nursing	Yes	149 (79.9)	47.50±7.21	0.329(.742)
	No	38 (20.3)	47.12±5.95	

Table 2. Degree of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nd Major Variables (N=187)

Variables	Mean±SD	Average Mean±SD	Minimum~Maximum
Disaster perception	18.32±1.86	3.66±0.37	2.4~4.8
Disaster attitudes	28.50±2.96	3.56±0.37	2.3~4.5
Self-efficacy	29.36±3.96	3.67±0.49	2.4~5.0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47.20±6.20	3.15±0.40	2.1~4.2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to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187)

Variables	r(p)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Self-efficacy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0.163(.026)	0.262(<.001)	0.257(<.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Variables	B	S.E	β	t	p	Cum. R ² *	F (p)
Constant	17.016	5.196		3.275	.001		
Self-efficacy	0.999	0.246	0.276	4.070	<.001	.101	20.878(<.001)
Disaster attitudes	0.391	0.153	0.200	2.976	.003	.153	16.648(<.001)
Grade**	2.145	0.835	0.172	2.569	.011	.191	14.378(<.001)

* Cum. R²=Cumulative R²

**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분석 전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값을 살펴본 결과 1.896으로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를 검토하였다. 상관관계는 $r=-0.177\sim 0.262$ 로 나타나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이었고, 공차한계는 0.914~0.99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13~1.094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효능감, 재난에 대한 태도 및 학년을 포함한 모형은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대해 19.1% ($F=14.378$,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차이를 보면, 3학년보다는 4학년이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에 비해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으며, Yang[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Hong[17]의 연구에서도 3학년보다는 4학년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더 높았고, 국군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Seo와 Suh[18]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높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국군간호사관생도는 학년별에 따라 이론교육을 거쳐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재난 및 응급 관련 간호를 더 많이 학습하였고, 다양한 실습을 통한 간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재난간호역량이 더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Kim[9]의 연구에

서는 학업성적(점수)이 우수할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긴 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인식은 3.66점, 재난 관련 태도는 3.56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본 연구대상자와 학년이 유사한 선행연구 중심으로 비교 시 Yang[7]의 재난인식 4.07점과 Park[19]의 4.10점 및 Song과 Kim[20]의 재난인식 3.74점, 재난 관련 태도 3.70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지역사회간호학 내에서 3시간 정도 재난간호를 학습할 뿐 응급 또는 재난간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 결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Lee와 Lee[10]의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재난 대응교육을 실시한 후 재난지식과 재난 관련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별도의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67점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Hong[17]의 연구에서는 3.7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들의 성공적인 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념으로써 거침없는 업무 추진과 위기상황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21]. 따라서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은 3.15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본 연구대상자와 학년이 유사한 Song과 Kim[20]의 3.70점과 Seo와 Suh[18]의 3.34점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Hong[17]의 3.17점과는 유사한 점수를,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Song, Han과 Seo[22]의

3.01점에 비해서는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재난간호 교육의 이수 여부[7,22]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각 연구대상자별 학년의 차이[17,22]에 따라서도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차이를 보여 향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WHO와 ICN에서는 간호사는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5].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별 학습성과 역량 중에 '재난 및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인구집단 건강보호를 위해 대비한다'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어[6], 각 간호교육 기관별로 이러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4]. 간호대학생이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알 수 있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발생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Hong[23]은 재난교육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난교육과 관련된 1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10편의 논문에서 재난교육 후 재난관리역량, 재난지식, 재난간호자신감 등의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재난간호핵심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난간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난간호 교육시 다학제간 교육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학문과 직종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며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협력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17,23]. 향후 재난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수법 등을 고려할 때에도 교육 이수 후 바로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7,17,20],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 관련 태도[20],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자기효능감[17]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l[1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재난간호 수행능력은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인식과 재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재난 관련 태도를 함양하고,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재난간호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재난 관련 태도, 학년으로 나타났고, 주요 예측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Yang[7]의 연구에서는 재난준비도, 학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교육경험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Hong[17]은 학년, 자기효능감, 재난준비도, 응급실 실습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1]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재난간호 자신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자신감은 재난 상황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통해 증진된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학년이 높을수록 재난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고, 또한 다양한 부서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것이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재난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현장에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재난간호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자기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1,17]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효능감은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직무 수행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24], 재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25].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은 재난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7].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재난간호핵심역량 수행을 통한 반복적인 성공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재난간호 교육을 운영

하면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도 강화한다면, 재난간호핵심역량 함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재난 관련 태도를 강화하고 재난간호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표본추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다만,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시에 기초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재난 관련 태도 및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19.1%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재난 관련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각 대상자별 재난간호핵심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J. Kim, H. M. Jung, N. H. Kim, Y. H. Lee & M. S. Kim. (2121). The factors influencing preparedness on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 283-292.
DOI : 10.15207/JKCS.2021.12.1.283
- [2] Y. H. Cho, Y. H. Chung & N. Chie. (2018). Status and issues on disaster preparation programs on public health center. *Journal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43(2), 63-73.
DOI : 10.5393/JAMCH.2018.43.2.063
- [3]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Portal. (2021). *Disaster safety framework act. (Online)*.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 [4] K. H. Pyeon. (2020, September). *Medical community shocked by Corona-19*. The JoonAang (Onlin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9693#home>
- [5] World Health Organization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9).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 [6] O. H. Ahn. (2022). *A handbook of 2022 for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Korea Institute of Nursing Evaluation, 42-43.
- [7] S. A. Yang. (2018).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39-51.
DOI : 10.22156/CS4SMB.2018.8.3.039
- [8] S. J. Han et al. (2019). A content analysis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i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307-323.
DOI : 10.5932/JKPHN.2019.33.1.5
- [9] H. J. Kim. (2015). A study on disaster preparedness,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447-7455.
DOI : 10.5762/KAIS.2015.16.11.7447
- [10] J. E. Lee & E. J. Lee. (2020). The effects of disaster training education on the attitudes, preparedness, and competencies in disaster nursing of hospital nurses. *Journal Korean*

-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1(4), 491-502.
DOI : 10.12799/jkachn.2020.31.4.491
- [11] C. H. Woo, J. Y. Yoo & J. Y. Park. (2015).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11), 19-35.
DOI : 10.14251/krcem.2015.11.11.19
- [12] A. S. Park. (2017). The effect of disaster awareness, attitudes, preparedness on the basic competencies of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1625-1636.
- [13] C. Chen, M. S. Gully & D. Eden.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14] Y. S. Kim. (2008). *The effect of the self-leadership on team-work,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focused on deluxe hotel's wine & dining.*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15] J. Y. Noh. (2010). *Nurses'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6] E. K. Ahn & S. K. Kim. (2013).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6), 257-263.
DOI : 10.14400/JDPM.2013.11.6.257
- [17] J. Y. Hong. (2020). A study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2), 199-205.
DOI : 10.17703/JCCT.2020.6.2.199
- [18] S. H. Seo & E. Y. Suh. (2018).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among Korea armed force nursing academy cadet. *Korea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6(1), 61-70.
- [19] J. E. Park. (2019). A convergence study o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38-46.
DOI : 10.22156/CS4SBN.2019.9.11.038
- [20] H. Song & H. S. Kim. (2020). Convergence of the factors influencing of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and self-resilience on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351-359.
DOI : 10.17703/JCCT.2020.6.1.351
- [21] D. H. Schunk. (1982). Progress self-monitoring: Effects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1(2), 89-93.
- [22] I. J. Song, J. H. Han & S. H. Seo. (2018).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nursing competen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2), 663-680.
DOI : 10.22251/jlcci.2018.18.22.663
- [23] E. J. Hong. (2020). A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disaster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and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5), 60-74.
DOI : 10.22156/CS4SMB.2020.10.05.060
- [24] D. Paton. (2003). Disaster preparedness: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Disaster Prevention & Management*, 12(3), 210-216.
- [25] N. Kapucu. (2008).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better community organizing, better public preparedness and response. *Disaster*, 32(2), 239-262.

오 윤 정(Yun-Jung Oh)

[정회원]



- 1997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2013년 2월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지역사회보건
- E-Mail : yjoh@kmcu.ac.kr